

Jeonbuk Institute

기획연구

2023-06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Women in Jeonbuk: Exploring the Oral History of Jeonju Nambu Market

전희진 이주연 장충희 전아람 최지훈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협력

연구진 소개

전희진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장충희

공주대학교 문학 박사(고대사)
백제문화기획 대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전아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지훈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기획연구

2023-06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Women in Jeonbuk: Exploring the Oral History of Jeonju Nambu Market

전희진 이주연 장충희 전아람 최지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전희진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5장
공동연구	이주연	연구위원	제5장
	장충희	연구위원	제2장 제2절
	전아람	전문연구원	연구지원, 제3장 ~ 4장
	최지훈	전문연구원	제4장

자문위원	류시현	광주교육대학원 교육문화원장/도서관장
	주경미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센터장
	김은혜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최정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이숙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최은영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구술면담자	권애자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박유선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봉귀숙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안소민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이윤희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이현경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장미경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조은지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연구관리 코드 : 23GI1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역구술사는 지역을 살아낸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동체와 개인이 어떻게 지역을 구성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
- 지역적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의 자부심 고취를 위한 지역 역사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하여,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구술사를 통해 수치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 못했던 경험을 관찰하여 전라북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역사적 역할을 다시 살펴보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전주 남부시장은 전라북도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이를 통해 전라북도 시장 공간의 역동적 변화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씨실과 날실로 엮이는지 추적 가능
- 산업화, 도시화, 교통의 발달 등 근대적 현상의 축약판을 경험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국가, 지역사회, 개인의 다층적인 조건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민을 역사 기록 주체의 역할로 호명
-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기록전문가 중 8명의 수료생과 연구진이 결합하여 9명의 구술채록자가 전주 남부시장 여성상인 9명과 짝을 이루어 상인과의 면담을 각각 3차례 진행
- 작성된 구술자료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합평회를 통해 수정 보완하고, 이후 감수를 통해 구술 원고 작성
- 보고서의 4장 부분인 구술사 부분을 분리하여 이후 구술사 자료집으로 출간 예정

2. 결론 및 정책제언

1) 지역, 시장, 삶에 대한 이야기

- 구술사 기획을 통해 지역의 상인 9명을 만나, 직접적인 서술에서 나타나는 명시적인 표현 “다 좋은 분들이야”라는 표현과는 배치되는 경험들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텅텅 하지만, 인생의 굴곡마다의 힘겨움도 나누는 기회
- 어린시절의 가족, 학업, 취직, 혼인, 자녀 출산, 시가와와 관계 등 1차 사회집단의 안의 관계와 경험이 구술에 참여했던 상인들의 삶의 많은 부분 차지
- 전주 남부시장에 들어온 방식도 다양했고, 다루고 있는 상품에 따라 그 상품과 관련된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구술도 들을 수 있었고, 시장에서의 손님으로 등장한 지역민들의 삶도 같이 볼 수 있었음
-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전성과 쇠락에 영향을 주었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도 남부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
- 전주의 주거지, 자금 마련 방법, 업종에 따라 자식들이 대를 잇는 경우와 아닌 경우 등 다양한 주제는 구술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고, 다른 경험을 들어보는 의미를 제공

2) 구술자료의 활용 방안

- 활용방안은 우선 구술 자료집 출간, 지역 내 구술기록자의 발굴 및 활동 기회 확대, 디지털 아카이브 구성을 통한 음성파일과 녹취문 원자료의 보존을 제안함
- 이후의 지속적인 구술사 기획과 관리의 주체를 선정하고 구성원간의 협업 요청
- 구술사와 영상 자료 제작, 지역 구술사의 전시, 지역 초중고에서의 구술자료를 통한 지역사 교육도 가능

차 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4

 가. 구술사, 지방사, 여성사 4

 나. 전주 남부시장과 상인들의 삶 5

3. 연구 방법 6

 가.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6

 나. 조사방법 6

 다. 전문가 자문 7

 라. 연구 추진체계 8

제2장 구술사 이론 검토

1. 구술사와 지역여성연구 11

 가. 구술사 개념 11

 나. 구술사를 통한 지방사 12

 다. 구술사를 통한 여성사 13

2. 전통시장 관련 연구와 인식 14

 가. 전통시장에 대한 선행연구 14

 나. 전통시장에 대한 대중인지도 분석 15

제3장 전주 남부시장 유래 및 구술채록자

- 1. 전주 남부시장의 유래 및 변천사 23
- 2. 남부시장 관련 주목할 수 있는 지점들 28
- 3. 지역의 구술채록자 33

제4장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의 의미 및 활용 방안

- 1. 지역, 시장, 삶에 대한 이야기 39
- 2. 장소, 시간, 노동, 생애 42
- 3. 구술사 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45

참고문헌 48

SUMMARY 50

부록 55

별책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 지역 여성사 발간 현황(1996~2022.11.30.)	13
[표 2-2] 전통시장 키워드 분석 개요 및 결과	15
[표 3-1] 남부시장 구술사의 예상 영역과 질문의 의미	30
[표 3-2] 남부시장 구술사의 (예상) 질문 리스트	31
[표 3-3] 전북 여성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	33
[표 3-4] 구술사 기획에 참여한 상인들	34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 흐름도	8
[그림 2-1] 전통시장 '빈도수' 워드클라우드	17
[그림 2-2] 전통시장 '빈도수' 바그래프	18
[그림 2-3] 전통시장 '단어 감성분석' 그래프	19
[그림 2-4] 전통시장 '감성단어 분석' 그래프	19
[그림 2-5] 전통시장 '감성단어' 워드클라우드	20
[그림 3-1] 전주 남부시장 지도	26
[그림 3-2] 완주군 이서, 구이, 소양과 남부시장 위치도	27
[그림 3-3] 남부시장 내 구술사 참여 상점 위치	35
[그림 4-1] 구술사 영상 제작의 예	47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 방법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구술사는 지역을 살아낸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동체와 개인이 어떻게 지역을 구성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의 자부심 고취를 위한 지역 역사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구술사를 통해 수치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 못했던 경험을 관찰하여 전라북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역사적 역할을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전주 남부시장은 전라북도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이를 통해 전라북도 시장 공간의 역동적 변화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씨실과 날실로 엮이는지 추적할 수 있다. 산업화, 도시화, 교통의 발달 등 근대적 현상의 축약판을 경험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국가, 지역사회, 개인의 다층적인 조건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민을 역사 기록 주체의 역할로 호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술사를 통한 새로운 자료의 구축은 기존 역사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표현되는 역사가 아닌, 정치사회적 변화와 지역적 맥락과 개인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 다시 쓰기의 과정임과 동시에 지역의 경험이 지역사의 중심이 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가. 구술사, 지방사, 여성사

구술사는 사람들의 과거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술사는 역사 고증의 사료가 되며, 동시에 구술 기록이 된다(윤택림 2021). 이러한 구술사는 기존의 역사 서술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역사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어떤 식으로 행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술사의 문제의식은 지역의 역사와 경험에 관한 관심과 잘 맞아떨어진다. 국가적 제도나 법률, 사업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것처럼, 지역을 살아가는 개인의 경험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에 상경한 여공의 서사와는 다른 집에서 통근하면서 공장 노동을 경험하는 여성 노동자의 삶의 연구에서처럼, 가족과의 거리가 만들어내는 다른 경험은 여공 서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이성호 2009a).

여성구술사에 대한 관심은 구술사가 말하지 못했던 존재들의 발화를 이끌어낸다는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발화의 기회로 나타난다. 많은 지역 여성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여성구술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은 아직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역량에 따른 또 다른 발화 기회의 불균형한 배분으로 나타나고, 미래에 구술사의 영역에서도 지역 자원에 차등적인 축적의 결과를 볼 수도 있다.

나. 전주 남부시장과 상인들의 삶

산업화 전후시기에 서민들의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어떤 삶을 경험하고, 바라고 있었고, 또 후회하였는지를, 전라북도 지역의 대표 시장인 전주 남부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술사를 진행하였다.

전라북도의 여성을 정의하는 일은 어렵지만,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여성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남부시장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상인이면서, 가정에서는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의 차이가 경험의 차이를 만드는지, 장사를 누구와 같이하였는지에 따른 상점 안에서의 역할과 결정권의 차이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어려움의 시기에서 이들의 삶의 희망성쇠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판매하는 물품 관련 악재 등의 발생에 따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적하고자 하였다.

전주 남부시장의 경우 전통시장의 부흥을 위해 청년몰 등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주 안에 대형마트 규제가 꽤 엄격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시장 상인들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었는지,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그 삶의 다양한 면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

3. 연구 방법

가.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구술사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구술사 연구의 의의와 방향 및 구술사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의 의미와 특히 지역과 여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려고 했다.

더불어, 구술사의 대상이 된 전주 남부시장 관련 역사 사료 검토를 통한 남부시장의 의미와 지역 내에서 시장을 둘러싸고 경험되는 사건의 가능성을 통해, 구술사 인터뷰 질문 구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구술사의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남부 시장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지도를 구술사에 따라 정리하였다.

나. 조사방법

전주 남부시장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만들어진 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구술사 채록요원들을 통해 구술을 수집하였다.

구술사 채록요원들은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에서 2023년 6월에서 8월까지 진행되는 ‘구술기록자 양성 사업’을 통해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로 양성된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선발 구술자의 지원을 받아서, 구술 채록이 진행되었다.

남부시장 상인회를 통해 전주 남부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면접대상자를 추천받았고, 구술 채록자와 면접대상자의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여, 이때 대상자 각 1인당 인터뷰를 3회 정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혹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면접 중에 사진 촬영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3차례의 면접을 통해 정리된 구술사 원고는 합평회를 통해 1차 수정 제안을 받고, 이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정리하여 텍스트화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

연구자들도 ‘구술기록자 양성 사업’ 수업을 통해 구술사 수집 및 채록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교육을 같이 수행하고, 개별적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술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단계별 유의사항 및 주목할 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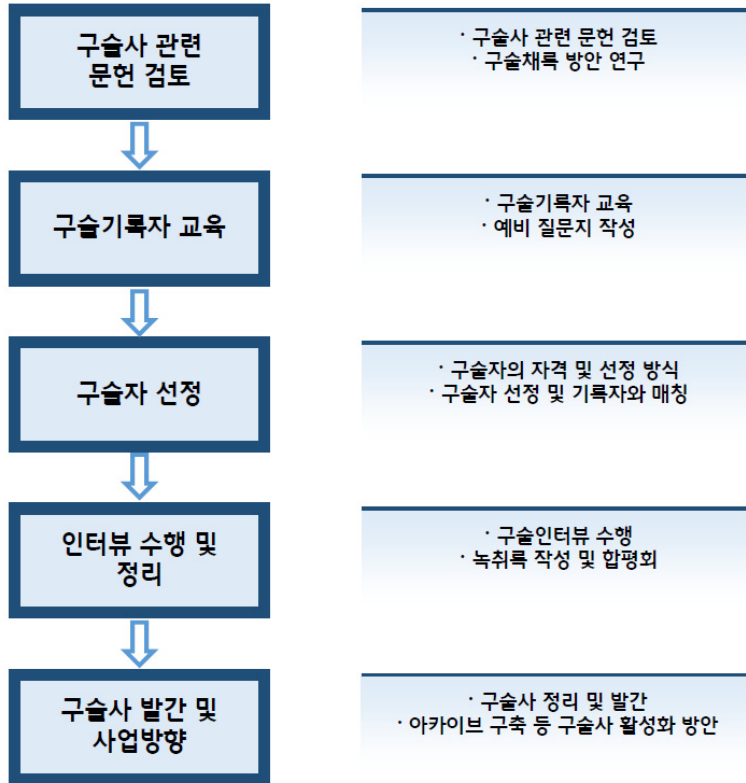
특히 구술자 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구술대상자분들로부터 사진 등을 제공받거나, 전주 남부시장의 다양한 품목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등의 조언은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큰 방향등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3차례의 구술 면담을 마친 뒤에 초고를 작성하고, 지역에 위치한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연구원들과의 합평회를 통해서, 구술의 내용과 서술방식, 통일성의 여부, 지역 사투리의 사용방식 등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실제 구술이 익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술사 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구술 채록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최종 원고에 대한 감수를 진행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과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그 부분을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타 지역 여성 구술사를 진행했던 전문가들을 통해 구술사 텍스트화 및 아카이브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진행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다.

라.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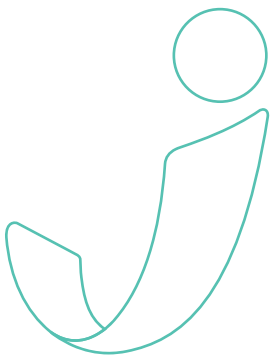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구술사 이론 검토

1. 구술사와 지역여성연구
2. 전통시장 관련 연구와 인식



제2장 구술사 이론 검토

1. 구술사와 지역여성연구

가. 구술사 개념

구술사는 기존의 엘리트주의적 지식체계에서는 재현 불가능했던 배제된 이들의 침묵과 경험을 가시화하며(김원, 2009),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역사가들이 당연하게 간주하고 있는 가설과 이미 인정되어 통용되는 해석에 도전하고, 그들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역사 서술 자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윤택림 2010)으로 의미를 가진다.

한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 속에는 특정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증언이 포함되기도 하며, 비록 개인적 기억에 의존한 것이지만,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기억하는 것이므로 의미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윤택림, 2019).

이러한 구술사를 기반으로 한 생애사 연구가 자기고 있는 함의는 개인의 사회에서 영향을 주는 존재임과 동시에 다시 구조를 변동시킬 수 있는 행위자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파악 가능하다.

개인의 경험과 기억은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기억으로 치환이 가능한 종류의 연구 텍스트로, 개인의 경험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성을 가지지만, 사회적으로 호명이 가능한 이유는 개인의 삶을 구조하는 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조건으로서의 사회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특정 주제나 집단, 사건, 지역에 한정하여 수행된 개인의 생애사 연구는 보다 상위의 집합적 기억으로 수렴될 수가 있으며, 주제사, 사건사, 지역사 연구의 주요한 텍스트로 작동 가능하다.

다른 한편, 개인의 사회적 위치성과 관련해서 시간과 공간, 역사와 사회라는 구조적 조건 안에서 주체로서의 개인의 삶을 조직해내는 행위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적 집단의 성원으로서 개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고, 후자는 사회적 주체

로서의 개인이 조직하고 성취한 삶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후자의 영역에서 조금 더 행위자의 자율성과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구술사를 통한 지방사

1990년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방사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한국학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거대한 변환의 시대인 20세기를 살아왔으면서도 역사를 남기지 못한 한국 민중들의 생활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작지 않은 시도의 작은 출발”로 시작한 이후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생애사 사업을 통해 지역에 근거한 개인의 생애사를 공적인 역사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의 경우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 6년에 걸쳐 대구시민 104명의 생애사 책을 발간하였고, 대구의 생애사 작업은 “개인의 삶이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계망이 가진 소중한 기억으로 우리 지역의 근대역사문화벨트 구축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대사 사건의 주요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구술증언 수집 등이 이루어지면서, 구술사는 민간인 학살 문제, 주한 미군, 지역사회운동 등의 주제를 포함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연구(최은영 2022, 진양명숙 2007, 이성호 2009a, 이성호 2009b)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구술사는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술사는 지역의 변화를 추적하고, 지역민들이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부여하여, 지역정체성이 구성되어지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전북지역에서의 구술사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사람들의 삶에 대한 복원이자, 지역 정체성의 확립에 기여할 여지를 가진다.

다. 구술사를 통한 여성사

구술된 이야기가 담고 있는 기억들, 망각들, 비밀과 침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도록 혹은 감추도록 했던 정치사회적 맥락과 연결되고, 편견에서 자유로운 발화의 과정은 여성주의 정치학의 실천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나영 2012).

여성구술사는 반가 며느리, 무당, 길쌈 아낙네, 소리꾼 등의 특수 직종 노동자에 대한 구술사를 비롯하여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구술증언을 사료화 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과거사 진상 규명의 관심에서 확대되어 평범한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였고, 결혼이 주여성과 같은 소외계층의 구술 채록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여성구술사 연구가 지역의 여성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여성사가 활발히 발간되었으나, 전북의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표 2-1] 지역 여성사 발간 현황(1996~2022.11.30.)

	여성사연구	통사	인물사	구술사	기타	총 발간물
서울	2	1		2		5
부산	1	5				6
대구	1	1	1	9		12
인천	3	1				4
광주	1	5		1		7
대전					1	1
울산			1	1	1	3
경기	1	3	2	2		8
강원		6	2	6	1	15
충북		1	4	6	1	12
충남		1	6			7
전북		1			2	3
전남	1	3	3	13		20
경북	5	2	5	7	1	20
경남	1	3	1	1		6
제주	3	10	1	7	1	22
계	19	43	26	55	8	151

출처 : 주경미 외, 2022

2. 전통시장 관련 연구와 인식

가. 전통시장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 성과¹⁾를 살펴본 결과 1977년을 시작으로 총 573개의 연구 성과가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전주 남부시장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0건의 연구 성과가 확인된다. 이들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연구주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분야로 직·간접적으로 이를 다룬 연구는 총 291건으로 전체의 50.8%에 달한다. 이외에도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55건(9.6%),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연구가 13건(2.3%) 확인되고 있다. 시기별로는 2000년대 이전 4건, 2000년대 18건, 2010년대 409건, 2020년대 142건이 확인된다. 2020년대의 경우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이를 감안한다면 2010년대부터 전통시장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된 연구 주제로 전개된 가장 큰 이유는 1993년 개장한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으로 대형할인마트가 전통시장의 쇠락에 가속도를 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활성화 관련 연구가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활성화 방안 연구 측면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대한 비교연구가 31건이 확인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전통시장 쇠락에 따른 경제적 관점이 투영되어 진행되었다. 시장에 대한 현대의 개념²⁾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품과 화폐를 매개로 상호 필요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일정하게 약속된 시간 속에서 교류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교류 공간이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시간 및 공간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인식은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절차이다. 시장(市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 많은 변화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품을 사고파는 경제적 관점이 더해진 것이 오늘날의 시장인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시(市, 저자거리) 관련 사료를 살펴보면 반란을 일으킨 신하의 처자식을 붙잡아 저자에서 목을 벤 『삼국사기』 기록이 주목

-
- 1) 연구 성과에 대한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수집기간은 2023.6.9.~6.11., 키워드는 '전통시장' 및 '전주남부시장'으로 진행하였음
 - 2) 정호기, 1997,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조직화와 전통시장」, 『현대사회과학연구』8,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26쪽.

된다.³⁾ 여기서 등장하는 시(市)의 기능은 반란을 일으킨 신하에 대한 처벌을 도성 전체에 알리는 사회적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관점이 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시장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했을 때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는 시장이 가진 사회적 관점에서의 연구 방향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통시장에 대한 대중인지도 분석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에 앞서 전통시장에 대하여 수요층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 등의 내적인 요소와 함께 소비자라고 하는 전통시장의 외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대중인지도 분석은 웹상의 키워드를 분석한 ‘TEXTOM’⁴⁾ 툴을 활용하였으며 크게 빈도 분석, N-gram(연계성), TF-IDF(가중치), 감성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TEXTOM은 Web과 SNS 상의 다양한 채널과 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웹 기반 빅데이터 분석툴이다. 분석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2] 전통시장 키워드 분석 개요 및 결과

분 류	내 용
키워드	전통시장
채널	네이버(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지식IN, 학술정보전체) 다음(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구글(웹문서, 뉴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수집기간	2013.1.1.~2023.6.16.(약 10년간)
수집정보량	총 6,63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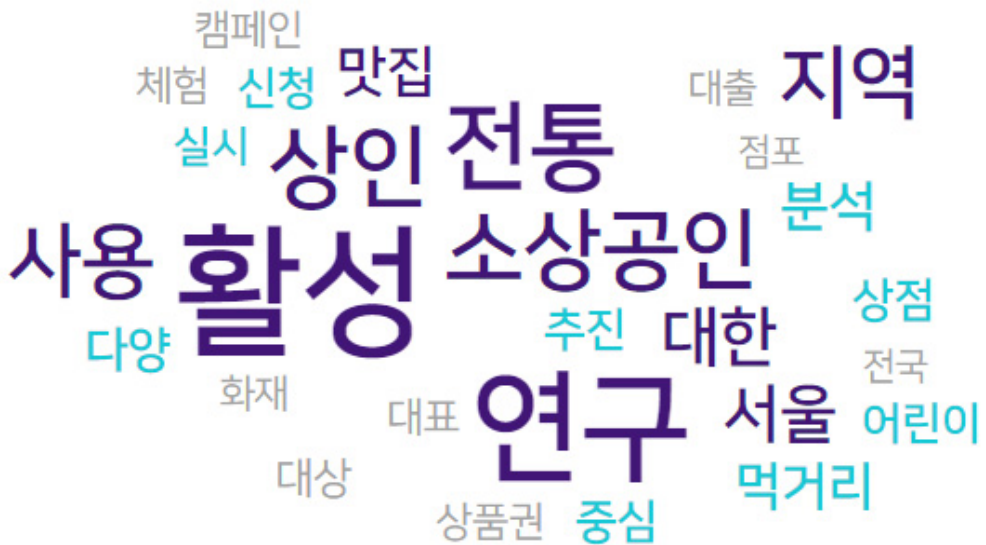
3) ‘봄에 좌평 해구가 은솔 연신(燕信)과 더불어 무리를 모아 대두성을 거점으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좌평 진남(眞男)에게 명하여 군사 2,000명으로 이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왕은] 다시 덕솔 진로(眞老)에게 명하여 정예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하여 죽이게 하였다. 연신이 고구려로 달아나자 그 아내와 자식을 붙잡아 웅진 저자에서 목을 베었다.’(『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삼근왕 2년 조.)

[표 계속] 전통시장 키워드 분석 개요 및 결과

분 류	내 용																												
채널별 수집정보량	네이버	웹문서	1,000건																										
		블로그	1,000건																										
		뉴스	0건																										
		카페	0건																										
		지식인	991건																										
		학술정보 전체	1,010건																										
	다음	뉴스,	152건																										
		블로그	163건																										
		뉴스	1,000건																										
		카페	161건																										
	구글	웹문서	107건																										
		뉴스	216건																										
		페이스북	282건																										
	유튜브		550건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채널별 수집정보량 (Bar Chart Data)</caption> <thead> <tr> <th>채널</th> <th>수집정보량</th> </tr> </thead> <tbody> <tr><td>naver (웹문서)</td><td>1,000</td></tr> <tr><td>naver (블로그)</td><td>1,000</td></tr> <tr><td>naver (지식인)</td><td>991</td></tr> <tr><td>naver (학술정보 전체)</td><td>1,010</td></tr> <tr><td>daum (웹문서)</td><td>107</td></tr> <tr><td>daum (블로그)</td><td>163</td></tr> <tr><td>daum (뉴스)</td><td>1,000</td></tr> <tr><td>daum (카페)</td><td>161</td></tr> <tr><td>google (웹문서)</td><td>107</td></tr> <tr><td>google (뉴스)</td><td>216</td></tr> <tr><td>google (페이스북)</td><td>282</td></tr> <tr><td>youtube (전체)</td><td>550</td></tr> </tbody> </table>			채널	수집정보량	naver (웹문서)	1,000	naver (블로그)	1,000	naver (지식인)	991	naver (학술정보 전체)	1,010	daum (웹문서)	107	daum (블로그)	163	daum (뉴스)	1,000	daum (카페)	161	google (웹문서)	107	google (뉴스)	216	google (페이스북)	282	youtube (전체)	550
	채널	수집정보량																											
naver (웹문서)	1,000																												
naver (블로그)	1,000																												
naver (지식인)	991																												
naver (학술정보 전체)	1,010																												
daum (웹문서)	107																												
daum (블로그)	163																												
daum (뉴스)	1,000																												
daum (카페)	161																												
google (웹문서)	107																												
google (뉴스)	216																												
google (페이스북)	282																												
youtube (전체)	550																												

■ 텍스트마이닝 결과

분석결과 가장 높은 빈도수⁴⁾를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는 ‘활성’으로 총 963건의 빈도수를 보이며, 이어서 ‘연구’ 846건, ‘전통’ 676건, ‘상인’ 617건, ‘소상공인’ 602건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역관광과 관련하여 ‘맛집’, ‘먹거리’, ‘다양’ 등의 키워드가 상위 30위권 안에 확인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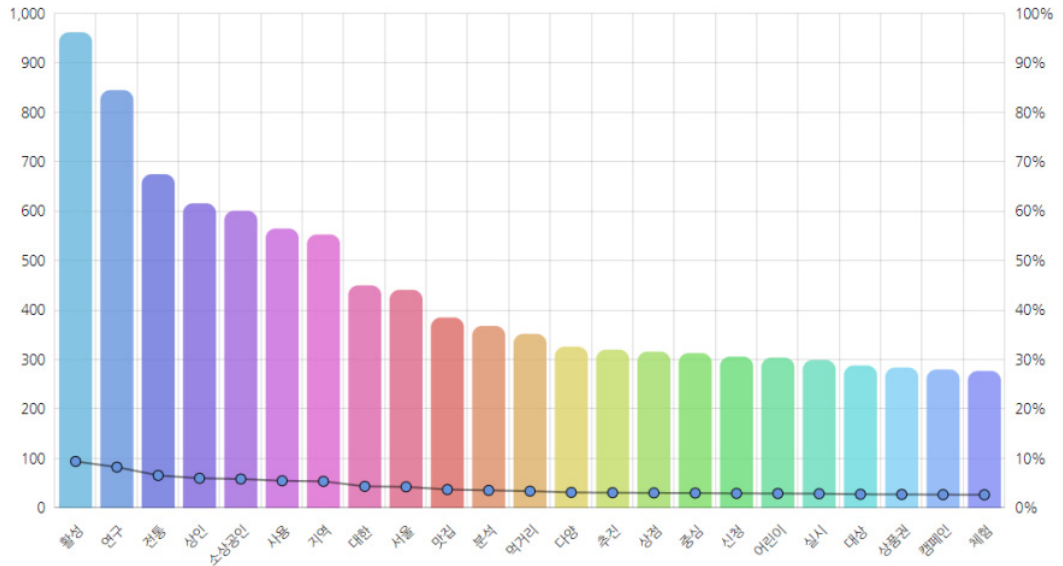
[그림 2-1] 전통시장 '빈도수' 워드클라우드

다음으로 N-gram⁵⁾ 빈도를 살펴보면(단어1-단어2)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전통시장-활성’으로 581의 빈도를 보이며, 다음으로 ‘전통-시장’ 266빈도, ‘전통시장-상점’ 261빈도, ‘소상공인-전통시장’ 205빈도, ‘전통시장-상인’ 183빈도 순으로 상위 빈도가 확인되고 있다. 시사 하는 점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시장의 내부구성원인 소상공인 또는 상인, 상점과 같은 요소들이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4) ‘전통시장’ 및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제외하였음

5) 문자열을 분석하여 연속된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각 단어 간의 문자열 연속 빈도를 통해 그 연계성을 빈도수로 보여주는 통계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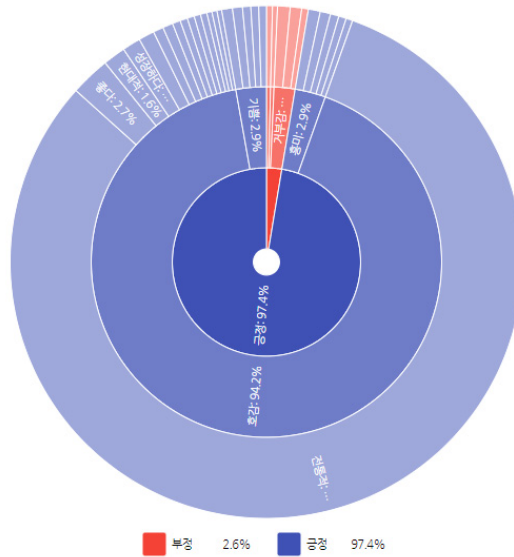
통계자료에서의 가중치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TF-IDF를 살펴보면(시장 및 전통시장 제외) 빈도수와 마찬가지로 활성, 연구, 사용, 소상공인 등이 상위 지표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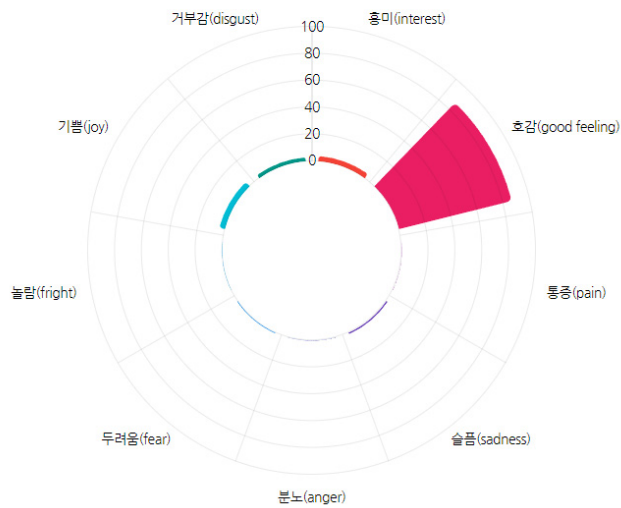
[그림 2-2] 전통시장 '빈도수' 바그래프

■ 감성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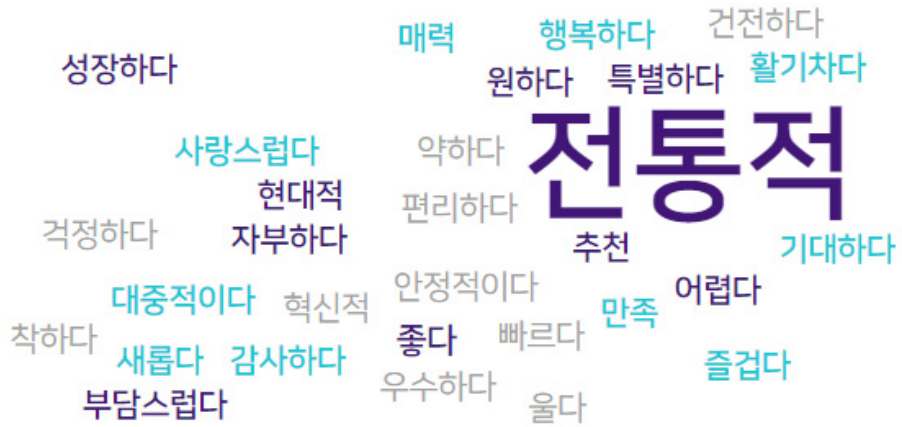
분석결과 긍정 94.8%, 부정 5.2%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키워드에는 특별하다 129건, 원하다 112건, 전통적 13,927건, 좋다 429건, 현대적 244건, 성장하다 198건, 추천 171건, 만족 111건, 대중적이다 110건, 자부하다 116건, 행복하다 108건 등이 상위를 위치하고 있었다. 부정키워드에는 답답하다 8건, 아프다 7건, 울다 65건, 힘들다 24건, 아쉽다 23건, 밉다 17건, 걱정하다 54건, 위축되다 31건, 주의 12건, 깜짝 10건, 부담스럽다 136건, 어렵다 124건 등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를 세부감성으로 살펴보면 호감 86.5%, 흥미 3.9%, 기쁨 4.4%, 거부감 2.9%, 슬픔 1.1%, 두려움 0.6%, 분노 0.2%, 놀람 0.2%, 통증 0.1%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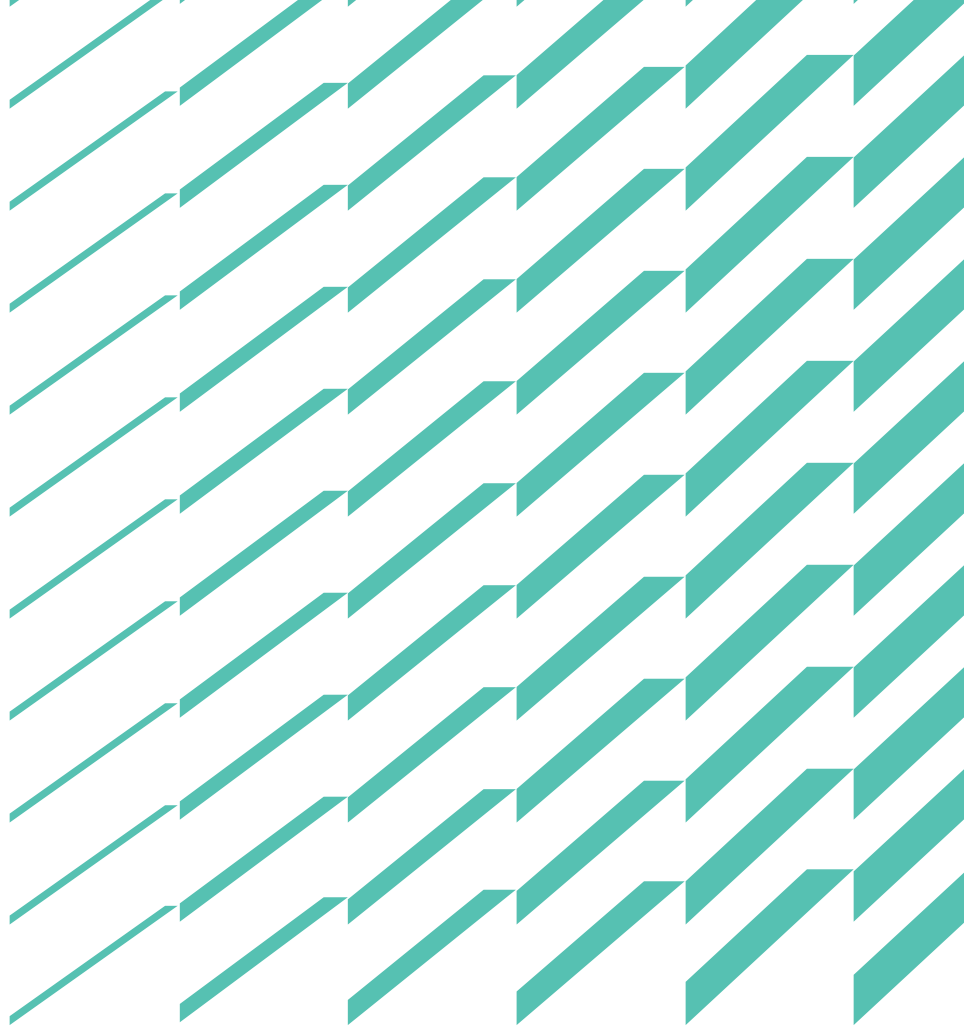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그림 2-3] 전통시장 '단어 감성분석' 그래프



[그림 2-4] 전통시장 '감성단어 분석' 그래프



[그림 2-5] 전통시장 '감성단어' 워드클라우드



제 3장

전주 남부시장 유래 및 구술채록자

1. 전주 남부시장의 유래 및 변천사
2. 남부시장 관련 주목할 수 있는 지점들
3. 지역의 구술채록자



제3장 전주 남부시장 유래 및 구술채록자

1. 전주 남부시장의 유래 및 변천사⁶⁾

전주 남부시장은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1722년 이하곤이 본 전주에 전주 풍남문 근처 시장에 대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다. 종로거리와 같이 수만 인이 모인 모습이라고 하니 그 당시에 꽤 번성했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풍남문으로 나아가 회경루에 올라 시장을 보니, 수만 인이 모여 서있는 것이 종로거리와 같았다. 잡화가 산적해 있는데, 평량자(패랭이, 대나무로 만든 것, 신분이 낮은 사람)와 박산이 반을 차지하였다. 반삭유초나는 쌀밥과 엿을 조합하여 만든다. 목판으로 종이처럼 골고루 얇게 눌러 네모나게 잘라 점점 타원형으로 하여 네댓 조각을 겹으로 쌓아 하나의 떡을 만든다. 길거리에 다니는 여인들은 모두 틀어 올린 머리를 하거나 파란색 보자기를 머리에 둘러쓰는 사람들이 많았다. 호남지방 풍습에 대저 머리에 청포를 둘러쓴 것을 좋아하는 노령이하 지방이 더욱 많았다 (1722년 12월 12일 이하곤이 본 전주, 구혜경 2016 재인용)

전주의 남부시장이 정기 공설시장으로 전환된 것은 1905년이며, 그 이전에는 전주부 내에 1개의 장사와 4대문 밖에 각 1개씩의 외장(外場)이 있어 남부시장의 경우 남문인 풍남문 지역에 형성된 외장이 그 기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동문 및 서문의 외장이 쇠락하면서 남부시장으로 통합되었고, 1936년부터는 오늘날의 남부시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남부시장의 규모는 오늘날과 비슷한 규모(5,800여 평)였으며, 1년간 출입한 인원이 186만 명에 달하는 호남권 최대의 물류집산지였다. 전주 남부시장의 입지는 광복 이후에도 이어져 전북의 상업, 금융 교통의 중심적인 위치를 고수하였으며 당시 ‘호남의 쌀 시세가 남부시장에서 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

6) 전라북도 전통시장 통합홈페이지 및 심민섭, 장광집, 2016,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 현황에 관한 연구-역사문화도시(서울특별시, 수원시, 강릉시, 청주시, 전주시, 경주시)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17, 한국기초조형학회, 196~197쪽.

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다양한 품목이 남부시장에서 거래되었는데, 미곡, 채소, 생선 등의 식재료를 비롯하여 특산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전주 인근에서 남부시장을 통해 유통되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미전, 염전, 송방, 어육전, 건재상(재목상), 금은방, 종이전, 음식점, 기름집, 유기전, 신발류 상점, 책방 따위는 부중에 정착하고 있었으나 장날이 되면 상품을 가지고 장에 나와서 팔기도 했다. 그러나 남 밖 장의 특색이란 경향에서 물려드는 색다른 물건이나 전주를 주변한 원근에서 모여드는 농산물, 해산물, 각종 공예품이나 토산물이었다.

면포, 마포, 명주 등 민간에서 짜내는 직물이 판을 치고 있었으나 교통의 발달로 모든 양상이 달라져서 비단, 공단이 선보이기 시작하더니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옥양목이 등장했고, 인조견의 시대로 접어들자 길삼이 사양길로 들고 말았다.

여채시장이 발족된 1929년까지는 갈치, 청어, 고등어 같은 간어물과 건어물이 고작이었으나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생어물 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무신, 운동화 등 신발류의 새로운 등장으로 나막신, 갓신, 미투리, 짚신, 꽃신 따위 재래식 신발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갓, 망건, 담배통을 만드는 장인이 전방을 열 정도로는 유지되었다. 유기시대에서 차츰 사기, 유리그릇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순 한지에서 백로지 따위 양지가 등장하여 금싸라기처럼 품귀했던 종이 시대를 종지부 찍었다.

천변에는 갈자리, 바작, 삼태기, 갈취, 지릅대, 등우리 따위 농가에서 필요한 물건과 여러 재료로 만든 각종 목공, 죽세공, 이룸도 모를 약재, 짐승의 가죽 등 잡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재봉틀이 등장하여 기성복을 만들거나 바느질집이 생겼다. 박가분이 등장하여 여인들의 얼굴이 분홍처럼 맑아졌다. 성냥과 석유의 등장으로 등잔이나 부싯쇠 부싯돌이 자취를 감췄다. 권연과 봉초가 등장하여 잎담배가 빛을 잃었다.

석양판이 되면 상관 골짜기, 구이면, 보광재를 넘어 오는 땀나무 장수가 열을 짓는다. 대개는 솔가지 솔잎을 지게로 지고 오는데 철에 따라서는 장작이나 삭정이를 짚어지고 오기도 한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대개 사전다리나 매곡교 일대의 천변이었는데 더러는 부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간혹 갓을 지게 꼬리에 걸고 오

는 사람은 양반 나무장수라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호통을 맞는다. 땀나무를 팔고 나면 지계를 진 채 다시 갓을 쓰고 돌아가는 모습은 진경이 아닐 수 없다(전주문화재단 2007; 구혜경 2016 재인용)

1936년 남문 시장은 8동 36호가 증축되고, 1937년에는 1등 상설점포 25호, 2등 상설점포 11호, 보통 상설점포 44동, 어채시장 1동 등이 세워지며 구조적인 확장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활발한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호남 최대 물류집산 시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구혜경 2016: 41).

남부시장의 전성기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까지이며 1968~1973년간 현재의 시장건물 7개 동이 신축되었고, 1978년 10월 13일에는 오늘날의 남부시장변영회를 중심으로 시장개설 허가되는 등 입지를 다져왔다.

전주 남부시장은 80년대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전주시 도심 외각에 대단위 주거공간이 형성되면서 물류의 중심점이 외곽으로 분산되었고,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전개된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인해 상권의 쇠락이 가속화되었다.

1980년 주변 노점을 시장 안으로 유입하기 위해 시장 건물 6동 2층에 ‘새마을 시장’으로 개설하여 천막으로 된 거설점포의 운영하였으나 2000년 화재로 상가 18채가 전소되면서, 이후 가건물의 점포형태로 40여개를 만들어 현재에는 청년몰로 운영 중에 있다.

오늘날 790여개의 점포와 1200여 명의 상인(노점상 257명, 천변 가설점포 187명, 기타 70명 포함)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취급품목으로는 가구류, 주단, 식료품, 건어물, 농산물 잡화가 있다. 타 전통시장과의 차별성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운영, 택배도우미 서비스 실시, 주차시설(천변 등)의 확보, 청년몰 입점, 야시장 운영 등이 있다. 최근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3년 전모 리모델링 지원사업, 점포 비가림막 설치, 2008년 야시장 개최, 2011년 주차장 확장, 2012년 청년몰 설립 등의 활성화 방안을 펴하고 있다.



자료: 전주남부시장 안내문

[그림 3-1] 전주 남부시장 지도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접근성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구술사를 통한 증언을 보면, 많은 손님들이 이서, 구이, 소양 쪽에서 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87년에 시집와서 그때부터 남부시장 고기전에서 정육점 하던 시어머니 일을 도왔지요. 그 당시 풍경이 어땠냐면 시장에 엄청 사람이 북적거리고 이 천변 위에(과일 파는 곳) 길까지 버스가 들어왔어요. 소구루마도 다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파리 하나씩 들고 동네에서 소구루마 하나 나가면 거기에 다 타고 나왔지. 보통 이서나 구이, 저쪽 소양 이런 곳에서 다 나왔어요.(‘순하게 살고 싶었지만 지금은 더불어 살고 싶지’ 구술사 부분)

남부시장 자랑? 남부시장은 그래도 전통이 있잖아. 오래됐잖아. 전통시장이면 남부시장이 크잖아. 그리고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지. 이서, 구이에서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젊은 층은 뭐 어찌다. 한 70%는 나이 드신 분이다 생각해야지. 이제 김제 쪽에서 많이 오는 편이고, 거의 다 뭐 시골 구이나 이서 여기 살다가 송천동으로 이사 가신 분도 오고. (손님들은) 여자가 더 많지. 거의 다 여성분들. (가족, 친척, 가족 같은 이웃으로 가득 찬 삶’ 구술사 부분)



[그림 3-2] 완주군 이서, 구이, 소양과 남부시장 위치도

2. 남부시장 관련 주목할 수 있는 지점들

남부시장 구술사 연구는 지역의 역사와 여성사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근대화의 경험, 도시로의 이동, 전통시장의 성장과 몰락, 가족 안에서의 책임과 경험 등 다양한 주제의 삶의 영역을 관찰하여, 다양한 목소리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남부시장의 역사를 기억하고, 1940-50년대에 출생하여,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주 남부시장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문은 출생 및 가족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 장사를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경험들, 전주의 지역적 특색과 연관된 질문들, 시장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출생 및 가족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태어났을 당시의 가정형편과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형제자매들의 구성 및 자신의 위치, 부모님의 기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특히 집안에서의 딸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당시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 오빠나 남동생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가족을 부양하거나 교육을 지원했는지의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자 했다.

또한 학교 교육의 경험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 어린시절의 꿈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분을 추적했다. 또한 공식적인 학교는 아니었지만 기술의 습득이나 혹은 다른 교육 기회의 경험 등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했다.

또한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취직이나 탈농의 경험 등을 통해 어떻게 전주 남부시장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인생 경로에 있어서 결혼 여부와 시기, 만남의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시점 및 지역, 자녀의 유무 및 출생 시기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려웠던 점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삶과 양육의 경험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듣고자 했다. 결혼 후 시부모님과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등을 통해 개인이 결혼을 통해 가족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찾고 수행하는 과정 등을 듣고자 했다.

또한 주택 마련의 경험 등은 지역 내의 주택 형태의 변화 등과도 연관될 수 있고, 지역의 재개발과 아파트 등 새로운 주거형태의 등장에 따른 이사의 경험도 묻고자 했다.

사회생활로 진출해서 가지게 된 첫 번째 직업과 당시의 생활 등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남부시장과의 인연이 첫 직업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남부시장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인지를 질문은 이 구술사에서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남부시장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누구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남부시장 안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구제되었는지 등을 묻고자 하였다.

취급하는 물품이나 물품의 변동 과정, 사회적 조건에 따른 물품의 경기 여부, 과거 경기가 좋았던 시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의 비교 등을 질문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후쿠시마 원전, 코로나 등의 농수산물 등이나 시장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과 가게 상황의 변동 등에 대한 질문과 IMF 시절이나 임대료 상승 같은 경제적 악조건의 경험담도 질문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 은행의 대출, 개인 간의 계나 사금융 이용의 경험, 정부지원금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어떻게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험 변화도 추적하고자, 명절 등의 고객 방문의 차이, 가족구성이 소규모화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시장 경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항들은 없는지 등도 질문으로 준비했다.

전주 남부시장은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어서 지역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한옥마을의 활성화가 시장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질문했다.

남부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개도 부탁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듣고자 했다. 농산물, 수산물, 의류 등의 상품의 유행이나 구매방식 등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상품 구성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시장 안에서의 상인들의 관계나 유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상인회 활동이나 갈등 경험, 고객과의 관계나 경험 등도 질문했다.

남부 시장은 청년몰이나 야시장을 통해 전통시장의 복원과 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 등도 질문했다. 또한 지역 정치인들과의 연계, 지역 상권 지키기 운동의 성공 여부도 질문지에 추가하여, 다양한 분야를 추적하고자 했다.

[표 3-1] 남부시장 구술사의 예상 영역과 질문의 의미

분류	구체적 질문
출생 및 가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에서의 기대의 충돌: 상인으로 사는 삶과 어머니, 부인, 며느리, 딸로 사는 삶의 충돌 경험 ■ 각자의 형편과 경로를 거치면서 성장: 집안에서의 딸의 역할과 기대에 따라서 오빠와 남동생의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취직과 탈농 경험 ■ 생계 부양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
시장 진입, 품목,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시장에 진입 경로: 누구를 통해 시장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시기, 품목, 전주에서는 어디에서 자리를 잡는지? ■ 취급하는 품목에 따른 경험의 차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IMF, 임대료 상승이나 가게를 빼주어야 했던 경험 등 ■ 교통, 자연재해의 경험, 화재 등의 사건사고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과의 관계, 사채, 계 등의 활용 및 실패담. 카드 대출 등에 관한 이야기 ■ 한국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 과정(1970년대 말 석유파동, 1990년대 경제 성장기, IMF 경제위기, 전통시장의 몰락과 성장 등) 1인 가구의 증가 및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대응
전주 지역 맥락에서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시장 복원 사업과 그에 따른 경험: 청년 중심의 남부시장 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 지역 정치인과의 연계. 지역 상권 지키기 운동의 과정과 방향. 전통시장 회복 운동에 대한 평가. 지역민과 연대 방식
시장 상인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상인들과의 유대관계나 혹은 갈등 경험, 고객과의 관계의 변화, 상인회 활동 경험 ■ 남부시장 상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역사에 대한 경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본격화된 한국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위기가 가족과 젠더, 여성의 성과 노동을 매개하면서 구체화 되는 과정

자료: 저자작성

이러한 질문들의 의미를 구술채록자들이 직접적으로 면담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질문으로 다시 구성하여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물론 구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채록자들이 자신이 묻고 싶은 질문을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그 질문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어떤 주제를 더 질문해야 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주제의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 전 사전 모임을 통해 공유하고, 면담 시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했다.

[표 3-2] 남부시장 구술사의 (예상) 질문 리스트

분류	구체적 질문
출생 및 가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 어린시절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어린시절 성장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으셨나요? ■ 가정형편은 어땠했나요? ■ 형제자매들은 많으셨나요? 관계는 어땠나요?
학창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언제 입학하셨나요? ■ 학교생활은 어땠했나요? ■ 학창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결혼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 신혼생활은 어디서 하셨나요? ■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나요? ■ 자녀 교육에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나요? ■ 내 집 마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 전주지역이 제일 활성화 되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 전주 지역이 활발했던 시기에 남부시장도 활성화되었던 건가요?
취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 당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 남부시장에서 첫 직장을 가지신 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경로로 남부시장에 들어 오셨습니까? ■ 남부시장에 일하던 가족이나 친척 등이 있었던 건가요? 소개로 들어오셨나요? ■ 언제부터 남부시장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시장 진입, 품목,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취급하시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 언제부터 그 물품을 취급하셨나요? 처음부터 그 물품을 하신건가요? ■ 왜 그 물품을 취급하게 되셨나요? ■ 지금 판매하시는 물품은 항상 경기가 좋은 편인가요? ■ 언제가 그 물품의 인기가 제일 좋았던 시기일까요?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후쿠시마원전, 코로나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 IMF, 임대료 상승이나 가게를 빼주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 장사를 하시면서 혹시 돈 관련 사고, 자연재해, 교통사고

분류	구체적 질문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게 운영에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시나요? ■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 정부 지원금 등을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 시장 상인분들과 계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카드대출이나 사채도 사용하시나요? ■ 시장 경기는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 명절에 사람들이 재래시장 방문하는 것이 줄었나요? ■ 1인가구의 증가나 식구 수가 줄면서 재래시장에서의 소비도 변화했나요? ■ 전주가 관광지로 되면서 지역 사람들이 아닌 관광객들의 방문이 더 증가하고 있나요?
전주 지역 맥락에서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시장은 언제가 제일 전성기였다고 생각하세요? ■ 전통시장 복원 사업은 언제였나요? 조금 상황이 좋아지셨나요? ■ 전주의 한옥마을 관광지 사업처럼 남부시장 청년물 사업도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좋아지셨나요? ■ 전주에 대형마트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금 판매하시는 물품이 지역의 대표상품이신가요? 조금 소개해 주세요. ■ 이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시장 상인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상인들과의 유대관계나 혹은 갈등 경험, 고객과의 관계의 변화, 상인회 활동 경험 ■ 남부시장 상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역사에 대한 경험
삶의 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뻐던 일은 무엇입니까? 혹은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인가요? ■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본격화된 한국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위기가 가족과 젠더, 여성의 성과 노동을 매개하면서 구체화 되는 과정

자료: 저자작성

3. 지역의 구술채록자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전라북도 거주자 중에 “전북 공동체와 역사, 여성, 구술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구술사 기록전문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3-3] 전북 여성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

회차	일시	시간	교육내용		비고
1	6.15(목)	1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및 교육안내)		대면
		3	이론	구술사의 개념과 특징	
2	6.22(목)	3	이론	여성 구술 생애사 인터뷰	비대면
3	6.29(목)	3	이론	여성 구술 생애사 인터뷰 사례와 연구윤리	대면
4	7.6(목)	3	이론	전라북도 여성사 : 시대적·역사적 배경과 개인의 삶	대면
5	7.13(목)	3	이론	특강 : 살아가고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기록하다	대면
6	7.20(목)	3	실습	구술자 선정 및 면담 진행 방법 계획서 공유	대면
7	7.27(목)	3	실습	질문지 작성, 구술자료 정리 및 아카이빙 인터뷰 실습	대면
8~ 10	8.3(목) ~8.17(목)	9	실습	조별 글쓰기 모임 3회차	멘토와 협의
11	8.24(목)	2	결과물 발표 / 수료식		대면

기록전문가 양성과정에는 15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 과정 수료 이후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지하여, 지역의 여성 구술사 복원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협동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구술사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교육 수료생 중에 8명의 지원자와 책임연구원까지 9명의 구술채록자가 시장 상인회로

부터 소개받은 상인들과 짝을 이어서 면담을 진행했다. 남부시장 상인회를 통해 여성상인을 중심으로 소개받았고, 남부시장에서 오래 활동했던 상인들이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나이가 들어 은퇴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남성 상인들의 영향력이 더 큰지, 의외로 여성 상인들 만으로의 섭외에는 어려움을 표하기도 했다.

[표 3-4] 구술사 기획에 참여한 상인들

연번	이름	상호	출생년도	주요 취급품목
1	김○○	○○농산	1948년	고춧가루, 마늘 등
2	엄○○	○○주단	1948년	포목, 주단
3	황○○	○○상회	1959년	채소, 농산물
4	이○○	○○상회	1947년	닭집, 야채, 두부, 박스수거
5	김○○	○○순대	1957년	순대국밥
6	김○○	○○젓집	1955년	젓갈
7	김○○	○○양품	1955년	옷가게, 야시장
8	이○○	○○공예	1955년	공예품, 목가구
9	오○○	○○한복	1944년	양장, 한복



[그림 3-3] 남부시장 내 구술사 참여 상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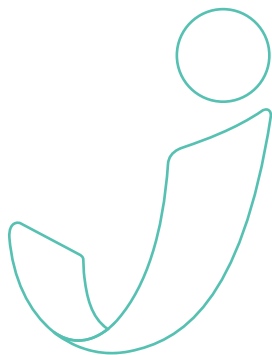
이 구술사 기획을 통해 지역의 시장 상인들에게 자신의 경험 발화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술 기록자들도 지역 내의 다른 세대의 여성들과 삶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지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의 정치적 참여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렇게 성장한 지역의 구술기록자들이 이후 다른 구술기획에 참여하는 지역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의 의미 및 활용 방안

1. 지역, 시장, 삶에 대한 이야기
2. 장소, 시간, 노동, 생애
3. 구술사 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제 4 장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의 의미 및 활용 방안

1. 지역, 시장, 삶에 대한 이야기

구술 면담을 진행하면서, 상인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들을 수 없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먼 곳을 바라본다든가 혹은 더 이상의 응답이 없는 경우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구술사 기획을 통해 지역의 상인 9명을 만났고,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나누어 주셨다. “다 좋은 분들이야”라는 말과는 배치되는 경험들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텅텅하지만, 인생의 굴곡마다의 힘겨움도 같이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상인들이 “내 이야기 별거 없다”고 시작하셨지만, 구술 기록을 읽다보면, 이보다 더 많은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나 싶기도 한다.

면접을 진행했던 상인들이 연세가 있어서, 태어나 어릴 때의 가족관의 경험만큼이나 결혼 후의 시대와의 관계에서 연대와 동시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좋은 시부모였다든가 언급과는 달리 시대에서의 경험은 부당한 경우도 볼 수 있었고, 남편에 대해 말을 아끼시기도 했다.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가족은 가정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노동 현장에서도 시간을 같이 길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그 가족과의 경험이 많은 서술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부시장에 들어온 방식은 다양하여, 기술을 먼저 습득하여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가 남부시장에 상점을 열기도 했고, 지인의 소개로 남부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상점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서 40여년을 보낸 상인들의 삶은 지역에서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시장에서의 사장님과 손님과의 관계는 어떤 때는 절친이고, 어떤 날은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들의 다정한 한마디로 상인들은 가게를 여는 기운을 차리기도 했고, 남은 단골만을 위해, 그들의 마지막 수익은 지어드린다고 단골만을 위한 포목점을 열기도 했다. 단골의 마지막과,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신을 서로 기억하는 과정은 자신

의 평생의 노동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에 대한 상인의 직업정신이 나타나는 대목이었다.

구술사를 진행했던 분야가 다양하다보니, 구술사를 통해 각 분야 상품에 대한 정보가 흘러넘치기도 한다. 전북지역에만 특수한 ‘경종배추’나 ‘콩밭열무’나, 왜 남부시장의 전통 국밥이 토렴식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 시기를 지나면서 변해가는 것같은 취향 등도 이 구술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깨끼한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교복을 물려받아서 다시 만드는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구술은 지역 구술사의 영역 확대의 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양장, 의류 및 공예품의 경우, 기성의류 생산이 확대되면서 더 이상 양장을 하지 않고, 옷가게를 한다든지, 혹은 중국에 한국의 기술자들이 가서 가구를 만들어서 역 수입하는 방식 등의 변화는 산업 전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 많은 봄가을이나 명절 전의 분주한 시장의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한복을 맞추지 않고, 대여했고, 결혼할 때 사가던 대여섯 개의 상도 준비하지 않는다. 잔치를 위해서 농산물, 생선가게 등이 흥했지만, 이제 집에서 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라졌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의 전성기는 갔지만, 그래도 또 다른 전략으로 사람들은 살길을 마련하고 있다. 그 길은 성공적이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인들은 남부시장의 자신의 가게를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다.

전주 남부시장의 지역적 위치가 광주와 가까워서인지,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특히 혼란한 상황에 많은 계가 깨지고, 계주가 도망가면서 시장 경기가 휘청한 이야기는 당시 상인들의 자발적인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함과 정치적 혼란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이 휩쓸렸던 남부시장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으로 6·25전쟁 시기와 마을사가 구체적으로 나온 구술된 경우도 있어, 지역사 연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목에 따라서 이미 자식들이 물려받아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종목들도 있다. 사양길로 들어선 것 같은 종목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없어, 이러한 전통시장의 미래를 암담하게 느껴지는 ‘오래됨’의 두려움이 있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구술에 참여한 상인들이 가지는 상인회 관련 언급에서도

볼 수 있다. 상인회 관련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와 가만히 참여만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모임에서 일정정도 거리를 두는 상인들의 상인회에 대한 기억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듯 했다.

전통시장 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진 청년몰이나 야시장 역시, 남부시장의 공간 구성, 청년 상인들의 남부시장의 기대,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존의 전통시장과 분리해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야시장에서 석화를 파는 분도 계셨다.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 등도 자신들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나 보여주기 식의 방문에 대한 아쉬움 등이 나타 나기도 했다.

예전 손님들과는 달리 요즘 손님들은 ‘둥글둥글한 맛이 없어지고’, ‘콩나물도 집 앞으로 배달해’주고, 상점에서 흥정하다가도 ‘인터넷에서 가격을 찾아본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인들은 자신들의 단골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맘을 내려놓는 연습도 하고, 시장 변화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한다.

거주지와 관련된 질문에 전주의 주거 시설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가 들어서 면서 많은 시장 상인들이 입주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다. 아파트 공사의 경기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구술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고, 다른 경험을 들어보는 의미만이 아닌,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지역사를 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 구술기획의 큰 목적이었다. 구술에 참여하는 시장상인들과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지역의 구술 채록자분들, 그래서 출간된 결과물을 읽는 지역민 이 다시 지역에 대해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화는 과정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물론 모든 참여자들이 다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강요하고 싶지도 않았다.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답을 듣는다면 나눌 수 있지만, 나누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강요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입장을 구술채 록자분들과 공유했다. 모든 역사적 서술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과 강조가 있는 것처럼, 이 구술사도 그런 선택과 정리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험을 지 역에서 제공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장소, 시간, 노동, 생애

■ 생애와 노동

구술사에 참여할 여성상인을 찾기 위해 상인회에 여성상인 소개를 부탁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표했다. 우선 많은 상인들이 이미 은퇴하여 역사를 기억하는 상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 상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남부시장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은퇴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실제 여성 상인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사전 조사로 돌아다녔던 남부시장에는 남자 사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자 사장님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여성 상인들은 상인회에 등록된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그 상점의 대표 연락처를 남성 상인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시장에서의 여성의 노동은 상점의 명의를 누구의 명의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남편의, (시)부모의, 자식의 상점에서 일하는 비가시적 노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술사에 나타난 여성 상인들의 노동은 남편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지만, 그 늦어지는 출근시간은 집안에서의 가사노동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고, 남자 사장님은 어떤 채소를 구매할지를 결정하는데, 여자 사장님은 자신이 결정하지 못한 채소를 팔아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할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 역할의 수행시간을 계산해보면 상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구매 행위의 담당과 그 외의 모든 일의 시간은 중요도에서는 차이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적으로 노동 투입은 더 많은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물건 주문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았다고, 전시를 많이 해두면 그것을 저녁에 정리하기 힘들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는 더 이상 남편의 노동 참여를 허용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남편은 배달이 필요할 때만 잠시 나오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술생애사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젠더에 따른 노동의 배분이 일관적으로 관통하기도 하고, 혹은 생애과정에 따라 양상이 변화되기도 한다(추주희 2023). 가족 구성은 구술자가 시장에 진입한 시기나 갓 결혼을 한 시기에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 어른들이 떠나가고, 남편의 폭력성도 찾아들게 되기도 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별규범의 변화는 1980년대의 구술자들의 젊은 시절과 2023년의 그들의 가족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기

도 한다.

■ 장소적 경험

여성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으로 상상되었던 가족이나 돌봄의 공간을 통한 공사이분법은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 농촌에서의 여성 노동이 여전히 집과 마을을 통해 가족에서 부여된 문화·규범적 가치들이 강조되고 수행되고 유동적으로 협상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시장 역시 가족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동시에 협상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추주희 2023). 상업을 수행하면서 고용인을 고용하더라도, 가족구성원이 그 상업에 동시에 참여함에 따라 집 안에서의 역할 규범이 시장이라는 공간으로 그대로 전이된다.

또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근대화의 확장에 따른 모빌리티의 증가는 과거와는 새로운 속도로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공간의 압축을 이루어냈고, 동시에 변두리의 탄생 등의 공간의 팽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전통시장 공간은 이러한 공간의 구성에서 거점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거점이 생기면서 그 변두리로 이동하는 경험을 하는 곳으로 나타난다(조민지 2022). 이러한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새로운 질서 등은 그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구매자, 판매자, 다른 주변 상인들, 새로운 기획으로 등장하는 상인들 등이 만들어내는 구성에서 우리의 여성 상인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 경험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구술사 자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자영업, 불안정노동

최근 과거의 표준적 고용에서 벗어난 비정형노동(non-standard work)이 증가하면서, 비정형 노동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김수영 외 2020).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으며, 사회보장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노동을 언급한다(전예지 2022).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불안정노동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다양한 만큼, 그 불안정 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수영 외 2020; 채현정 2022).

특히 시장 노동의 경우 가족기반의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의 지속성은 보장받는 반면, 사회보장이나 소득안정에 있어서는 불안정노동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채현정 2022). 특히 구술사에서 나타나는 노동 시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어 장사를 하고, 퇴근한 이후에도 내일의 상품 준비 등으로 노동 시간과 속도를 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노동이 적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3. 구술사 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 구술 자료집 출간

구술 아카이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녹취록을 정리하여 자료집을 출간하는 것이다. 이는 이 기획과제의 구술사 부분은 따로 정리하여 분리·편집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구술사 출간은 실제로 그 참여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의 건물이 지어지고, 새로운 방식의 구조로 변경되고, 노천에 있던 상인들이 자리를 옮기고 등의 공식적인 역사와는 또 다른 각 영역에서의 지역과 시장을 경험한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 구술기록자의 발굴 및 활동 기회 확대

이번 구술기획을 진행하면서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분들은 이미 지역의 구술사를 수집하여, 출간하거나 혹은 지역 언론에 기고하거나 등의 활동을 이미 해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역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런 지역 구술사 활동의 의미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러한 양성과정을 통해 훈련된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을 마련하고, 이들과 연계하여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구술기록자의 역량도 발굴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남길 수 있는 기회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록의 양식이 이번에는 녹취와 녹취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었지만, 스케치를 하는 분들이나 혹은 영상을 남기는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 좀 더 생생한 구술 기록의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양성과정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 디지털 아카이브: 음성파일과 녹취문 원자료의 보존

구술사 자료 활용은 이미 정제된 구술출간에 넘어서서, 음성파일과 녹취문 원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구술사 합평회 과정에서 출간 이후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서 너무 많은 개인정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녹취록에서는 담지 않고, 이후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원자료를 통해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충분히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구술사 자료집의 개인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유용한 자료로 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 구술사 기획과 관리의 주체 및 협업

이후 지역의 구술사 기획이 지속된다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예산과 이 기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새만금 간척지의 어업에서 농업으로 자신들의 업종을 변화시킨 경험이나, 용담댐 이주민들, 소금 간척장의 경험, 사라져가는 전북의 농업 전통 기술 등 지역에는 남길 필요가 있는 다양한 구술자원들이 다양하다. 이들에 대한 구술 기획 및 아카이브 구축은 연구원을 비롯 다양한 지역 내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구술사와 영상 자료 제작

구술사가 성공적으로 영상자료로 제작된 경우는 KBS 목포 방송국의 2020년 방송된 “근대역사 100년, 그들의 증언, 목포를 말하다”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목포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된 『목포시사』의 구술자와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찍고, 자료 사진 등을 추가하여 지역 역사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실제 구술사의 적극적인 활용의 예로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이들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쿠키뉴스 2021.9.1. 기사). 또한 현재는 전라남도 편이 방송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구술사 자료집이 지역의 방송국이나 지역의 영상 제작자와 협업하여 영상 자료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KBS 근대역사 100년, 그들의 증언, 목포를 말하다
<https://program.kbs.co.kr/1tv/local/modernization100/pc/index.html>

[그림 4-1] 구술사 영상 제작의 예

■ 지역 구술사의 전시

지역 구술사 전시의 예는 전북대학교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소의 2012년 “장인(匠人), the Style, Story, and Secret”에서 전북지역 무형문화유산인 거문고, 붓, 자수, 합죽선, 짚풀공예 등을 전시했는데, 이때 장인들의 구술 생애사 인터뷰와 작업과정에 대한 영상 촬영을 통해 그 결과물을 전시한 것이다(윤택림, 2019). 국립민속박물관과의 2012년 결혼 이주여성의 구술전, “내 이름은 마포구 그리고 김하나”라는 다문화전도 볼 수 있다(윤택림, 2019).

■ 지역 초중고에서의 구술사 교육

이번 구술사를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후 구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잊혀져가는 무형문화재나 전통문화에 대한 구술자료를 기반으로 동화나 만화를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도 향후 확대 방안으로 활용가능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 구혜경. (2016).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의 정체성: 전주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수영·하은솔·김 영. (2020).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고찰: 자발적 비정형 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사회정책 제27권 1호
- 김원. (2009). 서발턴은 왜 침묵하는가:구술, 기억 그리고 재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권 1호
- 김주희. (2018). “이런생활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중년여성 성매매 유입의 정치경제.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 유철인. (2022). 여성구술생애사와 신세타령. 민속원
-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 윤택림. (2010).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 윤택림. (202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채록 매뉴얼
- 이나영. (2012). 과정으로서의 구술사, 긴장과 도전의 여정. 한국여성학. 제28권 3호
- 이성호. (2009a). 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도시 경험과 근대 의식의 형성. 지역사회연구 제 17권 2호
- 이성호. (2009b). 19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운동: 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17권 2호
- 전예지. (2022). 중·고령자가 경험하는 불안전노동은 성별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타나는가? 노인 복지연구. 제77권 1호
- 조민지. (2022). 1960-70년대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와 여성 버스안내원의 노동. 여성과 역사 37
- 주경미·윤택림·소현숙. (2022). 충북 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 연구. 충북여성재단
- 진양명숙. (2007). 여성노동운동에 나타난 계급과 젠더: 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 채현정. (2022). 불안정 노동의 빛과 그림자: 태국 여성 시장 상인의 일 경험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8집 1호

- 최은영. (2022). 여성 노동자의 노동운동 참여 경험과 결혼 이후 활동: 전북지역 여성 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13권 1호
- 추주희. (2023). 집성촌 두 여성 노인의 노동 경험과 돌봄 활동으로 본 젠더 규범의 변화. 한국여
성학. 제39권 3호
- 쿠키뉴스. (2021. 9. 1.). '근대역사 100년 그들의 증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010055>)

SUMMARY

Women in Jeonbuk: Exploring the Oral History of Jeonju Namboo Market

Heejin Jun, Juyeon Lee, Choonghee Jang, Ahram Jeon, Jihoon Choi

This paper delves into the significant role of local oral history in shaping and understanding the identity of Jeollabuk-do, South Korea. By exploring the oral narratives of diverse individual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region's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quantitative and formal records. Focusing on regional identity and local prid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oral history of Jeonju Namboo Market: a representative traditional market in Jeollabuk-do.

By exploring the dynamic changes in the market space and the interweaving of individual lives with geographic,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s,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how the processes of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transportation have transformed local life. The study recognizes the multifaceted nature of local communities, and underscores the pivotal role of individuals as key contributors to the historical narrative.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collaboration with eight local writers who completed the local oral history course at the Jeonbuk Gender Equality Center. Nine team members were paired with nine female merchants in Jeonju Namboo Market,

each conducting three interviews. The oral data was transformed into draft narratives, refined through joint meetings, and finalized by undergoing expert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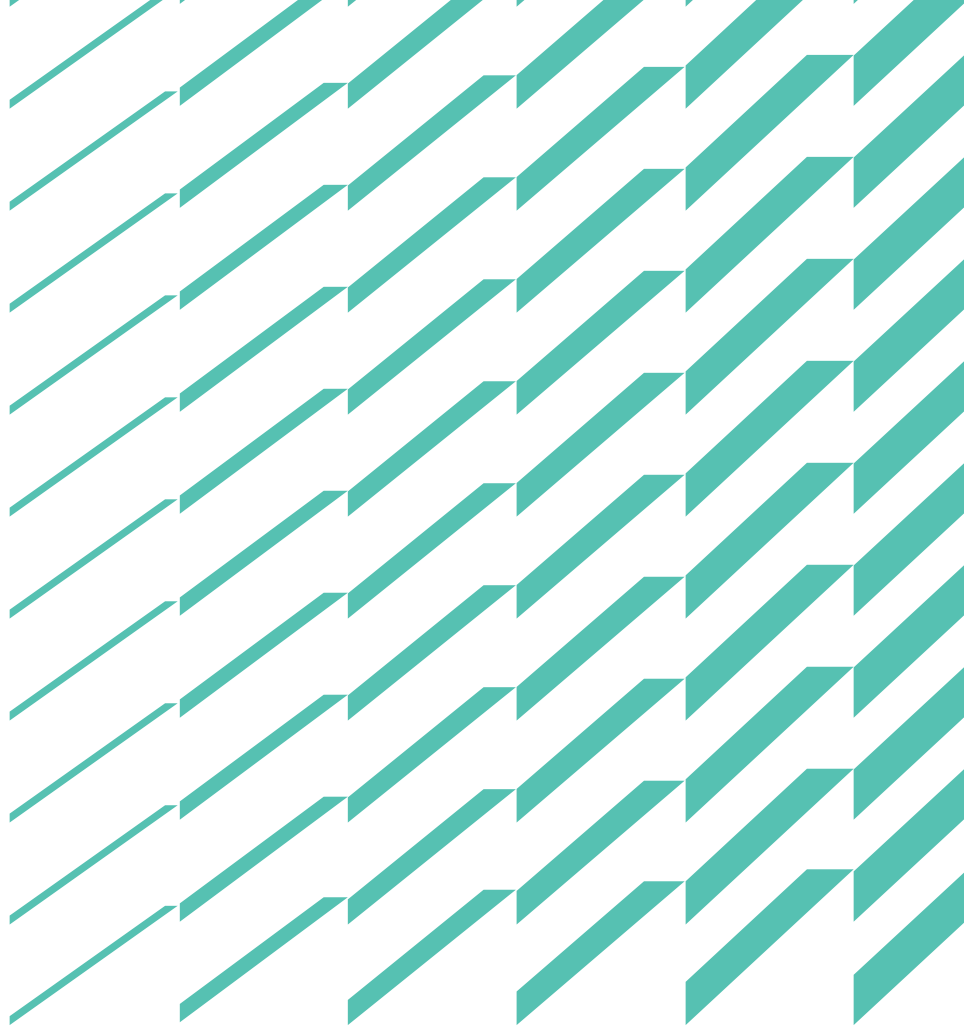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This paper highlights the diverse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within the primary social groups of participating merchants, covering topics including family, education, employment, marriage, childbirth, and connections with in-laws. It examines how the merchants started their work in Jeonju Namboo Market and explores the associated oral narratives on the histories, traditions, and cultures behind different market products.

The study uncovers the impact of socio-cultural changes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on the prosperity and deterioration of traditional markets. These oral historie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storing the region's history and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different lived experiences.

In conclusion, this paper advocates for the deeper utilization of oral materials, specifically recommending the publication of an oral data collection, expanded opportunities for local oral record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archive for audio files and transcription originals. It proposes the ongoing planning and management of, collaborative efforts in, and potential applications of oral historical records, such as through exhibitions and regional historic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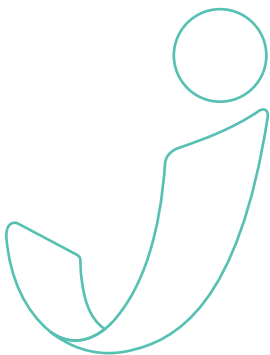
Key Words

Local Oral History, Jeonju Namboo Market, a Traditional Market, Local Community



부록

1. 구술동의서 서식
2.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동의서
3.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



기획연구 2023-06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24-1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선행경기종합지수 작성 연구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의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구감소 대비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전북 해양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북 청년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기획연구

전북형 물류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국제정세 변화와 새만금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주 남부시장 구슬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정책연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연구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 방안 연구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 방안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문화재활용 문화융합상품 개발방안 연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소득보전 지원체계 지원방안 마련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전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방향 연구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체계 연구
현업축사 매입부지 활용 주민소득창출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